

#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1.10

## 파월(f.국채)에 막힌 상승 랠리 신기록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 미 증시 동향: 금리,달러 ↑

•미 증시는 2년 여만의 가장 긴 상승랠리를 끝내. 시장은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장 초반 제한적 모습을 보여. 그러나 오후 들어 30년물 국채에 대한 부진한 수요가 확인되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폭을 확대하였고 파월 의장 역시 매파적(hawkish) 발언을 쏟아내며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워. 이 날 미 국채 수익률 전반의 상승과 달러 강세 여파가 증시 조정의 폭을 더 키워. (다우 -0.65%, 나스닥 -0.94%, S&P500 -0.81%, 러셀2000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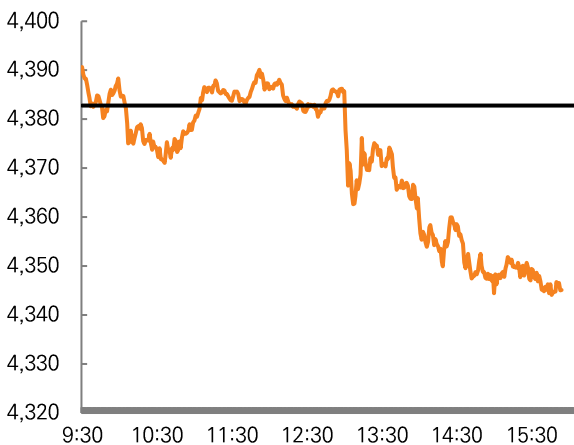
### 특징 종목: 전 섹터 약세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모두 약세. 특히 헬스케어(-2.10%), 경기소비재(-1.82%), 부동산(-1.51%), 유틸리티(-1.38%)가 1% 넘게 하락.  
 •(상승) 듀오링고(+21.37%), 어펄 홀딩스(+14.25%), 트랜스 다임그룹(+8.70%), 월트 디즈니(+6.91%) 등은 시장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 특히 월트디즈니는 보다 야심찬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비용 효율성 목표를 이전 목표인 55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높여.  
 •(하락) 아밀릭스제약(-31.89%), 탑골프 캘러웨이 브랜드(-16.87%), 벡톤디킨슨(-9.25%), 크리스피크림(-6.55%), ARM홀딩스(-5.18%) 등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에 약세. 테슬라(-5.46%)는 HSBC가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하향하자 약세.

### 한국 증시 전망: 블러핑?

•MSCI 한국 지수 ETF는 0.99%, MSCI 신흥 지수 ETF는 0.9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5.9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2% 하락. KOSPI는 0.5~0.9%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지난 10월 말, 4조 7,670억원(연간 누적)까지 하락했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약 2조원 증가한 6조 7,750억원까지 늘어. 같은 기간 코스피 6.5%, 코스닥 9.1% 상승하였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월요일 급등 이후 어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0%, 4.4%나 하락. 그리고 외국인은 개인과 정반대로 여전히 반도체 ‘Long(매수)’, 2차전지 ‘Short(매도)’를 고수하는 중.

S&P500 일종 차트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27.08	+0.23	상해종합	3,053.28	+0.03
KOSDAQ	802.87	-1.00	홍콩항생	17,511.29	-0.33
DOW	33,891.94	-0.65	인도센섹스	64,832.20	-0.22
NASDAQ	13,521.45	-0.94	유로스톡스 50	4,229.20	+1.21
S&P 500	4,347.35	-0.81	영국	7,455.67	+0.73
캐나다	19,587.41	+0.29	독일	15,352.54	+0.81
일본	32,646.46	+1.49	프랑스	7,113.66	+1.13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 ① 파월 ② 역레포

미 증시는 2년 여만의 가장 긴 상승랠리를 끝내, 시장은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와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며 장 초반 제한적 모습을 보여, 그러나 오후 들어 30년물 국채에 대한 부진한 수요가 확인되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폭을 확대하였고 파월 의장 역시 매파적(hawkish) 발언을 쏟아내며 증시의 하방 압력을 키워, 이 날 미 국채 수익률 전반의 상승과 달러 강세 여파가 증시 조정의 폭을 더 키워.

### # FedSpeak: 제롬 파월

이 날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은 파월 의장의 발언과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 있었음. 그러나 두 이벤트 모두 시장에는 우호적이지 않자, 국채수익률 상승과 달러 강세를 야기하며 증시 낙폭을 확대. 우선 IMF 컨퍼런스의 패널로 참석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지난 해부터 이어져 온 금리인상이 '충분히 제한적인 입장을 달성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서 정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또한 일부 가계와 기업은 금리 인상의 영향을 느끼지 못한다면서, 연준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할지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런 다음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 것인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특히, 파월 의장은 '더 큰 실수'는 금리를 충분히 높이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 이는 최근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내년) 4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으로 투자심리 위축을 불러와.

또한 파월 의장 발언에 앞서 진행된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하자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중심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수익률 곡선 전반의 '악세 스티프닝(Bear Steepening)' 나타나.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대비 13.95bp 상승한 4.63%를 기록했고, 30년물 수익률은 15.83bp 상승한 4.77%를 기록. 이 날 재무부는 24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2.24배(이전 2.35, 올해 평균 2.40)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았고, 입찰자 수는 2021년 이후 가장 적어. 특히 이번 주 3년물과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보였던 간접낙찰 증가세가 30년물은 오히려 둔화하는 모습 보여.

주간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증가와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정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실제 미국인의 주택구입역력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198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 역레포 잔고, 2년 만에 1조 달러 하회

연준의 대차대조표 중 부채항목 중 역레포(Reverse Repo) 잔고가 2021년 8월 10일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회. 역레포 잔고는 올 상반기 내내 2조 달러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 줄곧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지난 5월 말 이후 약 56%(1조 2610억 달러)나 감소. 이는 재무부가 국채발행을 확대하면서 머니마켓펀드(MMF)가 주요 자금 조달자로 나서고 있기 때문. 다만 문제는 최근 국채 발행 규모의 증가로 인해 역레포 잔고 감소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는 것. 만약 역레포 잔고가 모두 소진된다면 다음은 '지급준비금' 차례인데, 연준의 양적긴축 지속과 국채 순발행 증가는 자금시장에 부담이 될 가능성 높아. 파월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채발행으로 인해 재무부일반계정(TGA) 계좌 잔고가 늘어날 경우, 역레포와 지급준비금이 모두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만큼 '자금시장 경색'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확대될 것으로 예상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전 섹터 약세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모두 약세. 특히 헬스케어(-2.10%), 경기소비재(-1.82%), 부동산(-1.51%), 유틸리티(-1.38%)가 1% 넘게 하락.

**(상승)** 듀오링고(+21.37%), 어펄홀딩스(+14.25%), 트랜스다임그룹(+8.70%), 월트디즈니(+6.91%) 등은 시장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 특히 월트디즈니는 보다 야심찬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며 연간 비용 효율성 목표를 이전 목표인 55억 달러에서 75억 달러로 높여. 버진갤럭틱(+19.23%)은 4분기 예상보다 개선된 매출 전망을 내놓자 급등. 그러나 며칠 전 자본조달의 어려움과 정리하고 소식에 약세 보이기도. 발라리스(+1.87%)는 바클레이즈가 투자의견을 상향하였고, 아스트라제네카(+0.88%)는 암 치료제 판매 증가에 따른 매출 상향 소식에 상승. 또한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 기대감에 마라톤디지털(+7.95%), 코인베이스(+5.14%), 마이크로스트래티지(+4.12%) 등 관련주 강세

**(하락)** 아밀릭스제약(-31.89%), 탑골프 캐러웨이 브랜즈(-16.87%), 벡톤디킨슨(-9.25%), 크리스피크림(-6.55%), ARM홀딩스(-5.18%) 등은 시장 예상을 하회한 실적 발표에 약세. 테슬라(-5.46%)는 HSBC가 목표주가와 투자의견을 하향하자 약세. 리프트(-5.97%)는 3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으나 경쟁업체인 우버보다는 부진한 성과 지표 공개에 약세. AMC엔터테인먼트 홀딩스(-13.68%)는 시장에서 최대 3억 5천만달러에 달하는 자본조달 계획 공개에 급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 장기채 급등

**(국채)**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하자 10년물 이상의 장기채 중심으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며 수익률 곡선 전반의 ‘약세 스티프닝(Bear Steepening)’ 나타나.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대비 13.95bp 상승한 4.63%를 기록했고, 30년물 수익률은 15.83bp 상승한 4.799%를 기록. 이 날 재무부는 24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은 2.24배로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았고 입찰자 수는 2021년 이후 가장 적어.

**(천연가스)** 유럽 천연가스 선물은 풍력 발전량 감소와 추운 날씨로 인한 수요 증가로 인해 메가와트시당(MWh) 4% 상승한 47.5유로를 기록. 오는 일요일까지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난방과 가스 전력 사용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한편 유럽의 천연가스 저장량은 99%로 거의 가득 차

**(곡물)** 밀 선물 가격은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부셸당 5.8달러를 하회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블러핑?

MSCI 한국 지수 ETF는 0.99%, MSCI 신흥 지수 ETF는 0.9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15.9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5원 상승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52% 하락. KOSPI는 0.5~0.9%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지난 10월 말, 4조 7,670억원(연간 누적)까지 하락했던 외국인 순매수 규모가 약 2조원 증가한 6조 7,750억원까지 늘어. 같은 기간 코스피 6.5%, 코스닥 9.1% 상승하였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된 월요일 급등 이후 어제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3.0%, 4.4%나 하락. 그리고 외국인은 개인과 정반대로 여전히 반도체 ‘Long(매수)’, 2차전지 ‘Short(매도)’를 고수하는 중.



## 바이오 ETF 약세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70	대형 가치주 ETF (IVE)	-0.68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89
소매업체 ETF (XLY)	-1.87	소형 가치주 ETF (IWN)	-1.50
온라인소매 ETF (EBIZ)	-1.93	대형 성장주 ETF (VUG)	-0.80
미국 인프라 ETF (PAVE)	-0.24	중형 성장주 ETF (IWP)	-1.14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1.5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1.69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75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46	미국 국채 ETF (IEF)	-0.99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71	하이일드 ETF (JNK)	-0.66
바이오섹터 ETF (IBB)	-2.95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49	물가연동채 ETF (TIP)	-0.84
반도체 ETF (SMH)	-0.1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01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산업재	854.76	-0.24	+0.33	-1.32
에너지	631.14	-0.27	-5.80	-7.19
커뮤니케이션	228.08	-0.30	+1.92	-1.34
필수소비재	723.45	-0.40	-0.35	+2.62
IT	3,113.00	-0.40	+3.26	+3.63
금융	555.60	-0.59	+0.28	+1.10
소재	481.11	-0.87	-1.48	-2.14
유틸리티	304.11	-1.38	-2.52	+3.64
부동산	213.09	-1.51	-0.91	-0.08
경기소비재	1,259.72	-1.82	+0.48	-0.26
헬스케어	1,461.25	-2.10	-1.04	-3.91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5.74	+0.27	-8.40	Dollar Index	105.906	+0.30	-0.21
브렌트유	80.01	+0.36	-8.08	EUR/USD	1.0667	-0.39	+0.42
천연가스	3.04	-2.41	-12.70	USD/JPY	151.35	+0.25	+0.60
금	1,969.80	+0.29	-1.50	GBP/USD	1.2222	-0.51	+0.16
은	22.91	-0.17	-0.68	USD/CHF	0.9035	+0.47	-0.28
알루미늄	2,242.50	-0.93	+0.67	AUD/USD	0.6369	-0.52	-1.01
전기동	8,147.00	+0.06	+0.05	USD/CAD	1.3812	+0.15	+0.53
아연	2,602.50	-0.29	+5.02	USD/RUB	91.7452	-0.11	-1.56
옥수수	468.00	-1.58	-0.32	USD/BRL	4.9395	+0.61	-0.32
밀	580.75	-1.77	+2.87	USD/CNH	7.2986	+0.16	-0.38
대두	1,343.50	-1.48	+1.30	USD/KRW	1,310.10	-0.04	-2.44
커피	174.20	+1.22	+6.32	USD/KRW NDF1M	1,315.90	+0.66	-1.25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630	+13.75	-2.90	스페인	3.697	+3.40	-7.20
한국	3.935	-9.50	-22.50	포르투갈	3.381	+1.90	-2.10
일본	0.838	-1.90	-8.80	그리스	3.917	+1.60	-18.20
독일	2.647	+3.00	-7.00	이탈리아	4.514	+3.40	-11.7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